

수자원보호구역 내 숙박·음식점 규제 완화

총리·시도지사 참석 ... 광주서 지방규제개혁 2차 점검 회의

LG화학 등 지역기업 규제 풀어

수자원보호구역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일부 해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숙박시설 및 음식점 행위 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또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LG화학의 경우 공장을 증설하는데 있어 신규 부지에 대해서만 비점오염원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3D 프린터 제조업' 분류기준을 마련하는 등 정부부처의 각종 규제가 조만간 풀릴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광주 테크노파크 본부동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환경부, 해양수산부, 광주시, 조달청, 통계청, 식약처 등과 관련된 광주, 전남·북 지역현안 7건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윤성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윤성규 환경부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장, 정부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장 증설에 나섰다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규제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산단 LG화학 측의 '합리적 기준 적용' 요청에 환경부가 "신규부지에만 비점오염원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수용해 예정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비점오염원은 토지 표면에 축적된 오염물질이 강우에 의해 불특정 장소에서 유출돼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배출원을 말한다.

광주 광산업체 유토니스가 낸 '임대단지 분양 전환 및 전대 허용' 제안에 대해 광주시는 "실현 가능한 전대를 적극 검토하고 차세대 광산업 클러스터로 도약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약속하며 일부 수용했다.

또 장성 식품업체 (주)산들래가 제시한 '한시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및 절차 간소화' 안건에 대해 식약처가 영업신고를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수용하는 등 이날 토론안건으로 제시된 7건 가운데 4건은 수용, 3건은 일부 수용됐다.

이와는 별도로 전남도가 해양수산부, 환경부, 중기청 등을 대상으로 요청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해제 등 7건의 안건도 협의가 진전되고 있는 양상이다. 해수부는 오는 2017년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추진하고, 구역 내 숙박시설·음식점 행위 제한과 관련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에는 흑산공항, 진도항만, 완도 신지 등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조기 해제를 검토 및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환경부는 해상국립공원 내 양식장 면적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지만, 가두리 복합양식(어류+패류) 허용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 외에도 어업인 후계자 자격 및 어촌계 설립 기준 완화, 전남 서해연안지역 어획금지 기간(7.1~7.31)의 개선, 선박제조업 조달입찰 참가자격 개선 등도 각각 검토, 적극 검토, 수용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완도군의 '국유재산 내 육상 양식장 예로 해소', 광주시의 '진곡산단 개발계획 변경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등이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광주시는 클린디젤특화단지인 진곡산단의 입주업체를 4종으로 제한했다가 이를 해제함으로써 분양률을 15%에서 82%로 개선했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100년 광주의 겨울은 한 달 ▶ 6면

시간 속을 걷다-이정우 가곡 ▶ 18면



세월은 가도... 여전히 수줍은 새색시 제2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1회차 첫날인 20일 오후 금강산면회소에서 열린 단체상봉에서 남측 이순규 할머니(85, 왼쪽)가 북측에서 온 남편 오인세(83) 할아버지를 보고 수줍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결혼 1년·이산 65년 “할매, 난 말이야... 살아있는 줄 몰랐어”

이산가족 단체상봉 ‘눈물바다’

광주·전남 다섯 가족도 재회

“아이고, 오빠!” 60여년 만에 오빠가 모습을 드러내자 이흥옥(80) 할머니는 단 1초의 망설임 없이 부리나케 달려가 오빠를 부둥켜안고 울었다. 1년8개월 만에 재회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린 20일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말 그대로 기쁨과 회한의 눈물로 흥수를 이뤘다.

이 할머니의 오빠인 리홍중(88) 할아버지가 북측의 다른 이산가족들보다 늦게 행

사장에 도착하는 바람에 남측 가족들은 출입문 쪽을 계속 바라보며 애타게 기다렸다. 리 할아버지를 단박에 알아본 이 할머니가 달려나가자 남측 가족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어머, 오셨나봐”라면서 따라나갔다. 할아버지는 가족을 만난 기쁨에 눈가가 붉어지고 입까지 파르르 떨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이순규(85) 할머니는 호텔 연회장에서 헤어진 남편 오인세(83) 할아버지를 기다렸다. 뒤늦게 모습을 드러낸 오 할아버지는 긴 세월 보지 못했던 아내의 얼굴을 보며 지난 세월을 추억했다.

할아버지는 “할매 나는, 나는 말이야... 정말 고생도 하고 아무것도 몰랐어...”라고 말하며 주름진 아내의 손을 꼬옥 잡았고, 이 할머니는 “결혼 1년 만에 헤어진 뒤 65년 만에 만났는데, 보고 싶었던 거 말하면 한도 끝도 없지”라며 덤덤하게 말했다.

이옥봉(77) 할아버지도 60여 년 만에 만난 북측의 형을 보자마자 눈물부터 쏟아냈다. “형님 돌아가신 줄만 알았소”라며 흘리는 동생의 눈물에 형 리옥관(86) 할아버지는 “네 맘 다 안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남측 상봉단 389명(9가족)과 북측 141

명(9가족) 등 530명 상봉단의 꿈만 같은 첫 일정은 단체상봉이 시작된 지 2시간 만인 이날 오후 5시30분 종료됐다. 상봉단은 이날 오후 3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2박3일간의 상봉 일정을 시작했다. 북측 이산가족 신청자 중 광주·전남 출신자는 리병학(82·영암), 정규현(88·무안), 신귀중(85·담양), 선동기(81·광주시광산구), 권금옥(여·81·곡성) 등 다섯 가족이다.

상봉단은 이번 ‘단체상봉’에 이어 이날 저녁 남측 주최의 ‘환영 만찬’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한 차례 더 혈육의 정을 나눈다. 21일에는 개별·단체상봉을 하며,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작별상봉을 갖는 등 2박3일간 모두 6차례에 걸쳐 12시간 동안 가족과 만난다.

/이종원기자 golee@연합뉴스

내일 청와대 ‘5자 회동’...역사 교과서 논의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우철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5자 회동’을 갖고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4면>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동에서는 박대통령의 미

국 방문 성과 설명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 관련 법,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등의 조속 처리, 내년 예산의 범정부적 처리, 기타 현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5자 회동 개최 합의를 발표한 뒤

“이번 회동에서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국정 현안 전반에 관해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며 “특히 역사교과서 문제와 민생경제 현안, 노동개혁,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Handcrafted by Racers.

The new Mercedes-AMG GT.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신성자동차(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Mercedes-AMG GT S Edition 1 (3,982cc 1,665kg, 자동7단), 복합연비 7.6km/ℓ (도시연비: 6.7km/ℓ, 고속도로연비: 9.1km/ℓ), 5단급, 복합CO₂ 배출량 236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